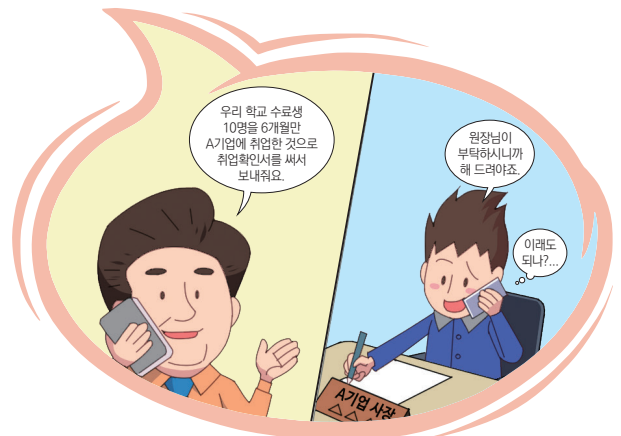




2022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대표 사례



2022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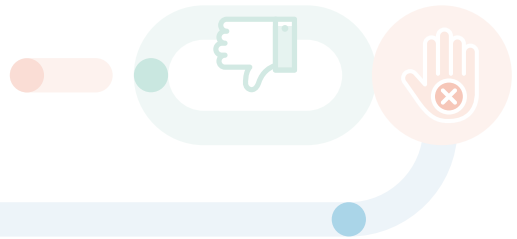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대표 사례

contents

| | | |
|---------|--------------|---|
| 사례 1 | 훈련생 모집 | • 학습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생 모집 그에겐 너무 어렵고, 나에겐 너무 쉬운 과정... 4 |
| 사례 2 | 훈련과정 운영 | • 인정받은 훈련내용과 다른 과정 진행 실무반에서, 자격증반으로 탈바꿈한 과정? 6 |
| 사례 3 | 훈련과정 운영 | • 형식적인 훈련이수자평가 진행 수업보다 형식적인 시험(평가)이 더 많다고? 8 |
| 사례 4 | 훈련과정 운영 | • 배부한 훈련교재 회수 물려주는 교재? 함께 보는 NCS 학습모듈? 10 |
| 사례 5 | 훈련과정 운영 | • 이수자평가 허위자료 제출 이수자평가는 등급이 중요하니까, 우선 만들고 보는거야 12 |
| 사례 6 | 훈련과정 종료 후 관리 |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확인서 조작 1인 벤처기업에 10명이 취업? ... 14 |

그에겐 너무 어렵고, 나에겐 너무 쉬운 과정...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A훈련기관은 웹 개발자 양성 과정에 대하여 NCS 5수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훈련기관장 C씨는 행정직원에게 해당 과정을 홍보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생을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의 기초지식이 없는 훈련생들이 상담받으러 왔다가 훈련수준이 높아 과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과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훈련생이 모집되지 않자, 훈련기관장 C씨는 훈련교강사에게 관심 있는 모든 훈련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훈련교강사는 기초가 없어도 누구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홍보하여 다양한 수준의 많은 훈련생이 모집되었고,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E 교육생

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



F 교육생

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웹 개발에 대한 실무지식을 배우려고 신청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기초가 없었던 훈련생, 전문적인 내용을 원했던 훈련생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많은 훈련생들이 중도탈락 하였습니다.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고수준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지만, 학생모집이 어려워지자 기초가 없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며 모집 후 낮은 수준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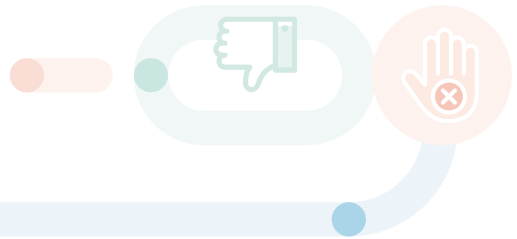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바른훈련 함께해요!

훈련기관에서는 훈련목표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초가 부족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들에게는 보충자료 제공 및 보강 등 맞춤형 지원으로 인정받은 훈련수준을 유지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반에서, 자격증반으로 탈바꿈한 과정?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H훈련기관은 ‘웹디자인 퍼블리셔 양성과정’으로 과정 인정을 받았습니다.

훈련생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날,

“웹디자인 퍼블리셔 양성 과정은 a, b, c과목을 배울거예요.”



훈련생 F씨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훈련생 J씨

어차피 배울 내용이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수업해주세요!

훈련교강사 K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훈련기관장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니, “요구사항을 잘 켜어서 진행해 보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훈련생이 원하는 자격증 과정으로 훈련을 진행해야겠다.’

다음날부터, 컴퓨터 그래픽스기능사 시험 교과목 c, d, e로 임의변경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웹디자인 퍼블리셔 양성과정’ 수업을 예상하고 참여한 X, Y, Z 훈련생



훈련생 X씨

오늘 a 과목을 배우기로 한 날인데 왜 교육내용이 다르지?



훈련생 Y씨

난 자격증이 있는데... 시간낭비야

X, Y, Z 훈련생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실무중심 내용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출 문제풀이 과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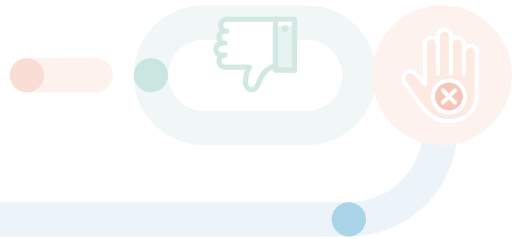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바른훈련 함께해요!

인정받은 과정은 운영계획서에 맞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훈련생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한 훈련과정의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인정받은 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오리엔테이션 시, 자세하게 설명하여 훈련생들이 해당과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수업보다 형식적인 시험(평가)이 더 많다고?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훈련교강사 K씨는 ‘바리스타자격증 실기 취득과정’의 훈련생 평가를 교과목 단위가 아닌 능력단위 요소별로 평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훈련교강사
K씨

형식적인 평가자를 만드느라 힘들었지만 자주 평가를 하게되면 이수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지? 정말 쉬운 문제들로 구성했으니 재평가 할 일은 없을거야!

수업 시간에 평가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바리스타 실기 취득 과정은 45시간 동안 15번 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③ 훈련생 I씨: ‘형식적인 시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 평가를 해야하나?’

일주일 뒤...

훈련교강사 K씨는 평가지를 채점하느라 매일 야근하고 있지만, 평가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훈련생은 매일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너무 쉬운 시험을 보느라 지쳐있습니다.

③ 훈련생 I씨: ‘너무 기초적인 시험 문항들만 있어서 시험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③ 훈련생 J씨: ‘형식적인 시험을 보느라 수업시간보다 시험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매일 야근하여 피곤한 K씨는 강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 자습을 시켜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③ 훈련생 I씨: ‘평가를 매일 했는데, 점수도 안 알려주시고, 피드백도 안 해주시니, 내 역량이 어느수준인지 잘 모르겠어’

③ 훈련생 J씨: ‘실무역량을 평가받고 싶었는데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

훈련생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훈련생 평가의 목적인 훈련생의 학습 성과 확인, 훈련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 촉진, 향후 교수학습 계획 등을 위해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훈련이수자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로 진행되어, 수업 및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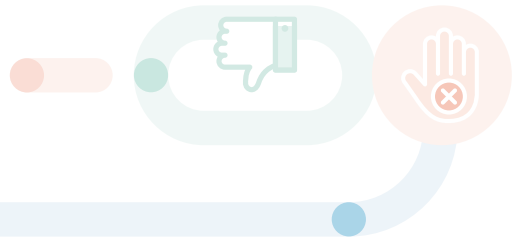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바른훈련 함께해요!

훈련생평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7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에서 명시된 내용과 같이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목표 수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려주는 교재? 함께 보는 NCS 학습모듈?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훈련교강사 S씨는 ‘건축도장 및 도배 기능인력 양성 과정’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인정받은 훈련교재는 총 4권, 시중 교재 2권과 NCS모듈 교재 2권 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주교재 4권 중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 2권만 훈련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훈련교강사 S씨

나누어진 훈련교재 2권은 과정이 끝나면 다음 학생들을 위해 행정실로 반납해주세요. 나머지 NCS 모듈 교재 2권은 책장에 꽂혀 있으니 필요하면 와서 확인하세요

도배 실기 시험 전날, 훈련생들이 마지막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P씨

교재가 없으니, 도배 순서를 복습할 수 없어 큰일이야



훈련생 O씨

행정실 문이 닫혀서, NCS 모듈 교재를 볼 수가 없어

훈련생들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인정받은 교재를 훈련생들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 훈련생들을 위해 다시 회수하였으며, 주교재로 선택한 NCS 모듈 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훈련기관에 비치하여 재활용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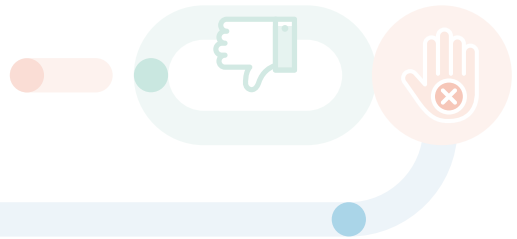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바른훈련 함께해요!

인정받은 훈련교재(시중 교재, NCS 모듈 교재 포함)는 훈련 교과목에 맞추어 훈련생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재를 다시 회수하거나, 과정 진행 중 함께 볼 수 있도록 비치만 하는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며, 훈련생은 연습 복습을 할 수 없어 만족도와 훈련성고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수자평가는 등급이 중요하니까, 우선 만들고 보는거야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훈련기관장 E씨는 작년 용접 실무과정으로 이수자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운 생산관리 직종이 추가되어 해당 과정도 A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담당하게 된 훈련교강사 F씨는 직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평가지를 개선했다고 하면 가점을 받겠지?’

R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 B씨에게 연락합니다.



훈련교강사 F씨

훈련생 평가지를 자문했다고 서명 좀 해주

내용을 전혀 모르는 컴퓨터 분야 전문가 B씨는 친구의 부탁을 듣고 서명해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수자평가 당일, 생산관리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수자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위원 H

평가지 자문을 받아 개선하였군요, 하지만 R대학 교수 B씨는 나도 아는 분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부정훈련관리센터에 신고해야겠단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훈련이수자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 검토에 대한 자문을 타 직종 전문가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평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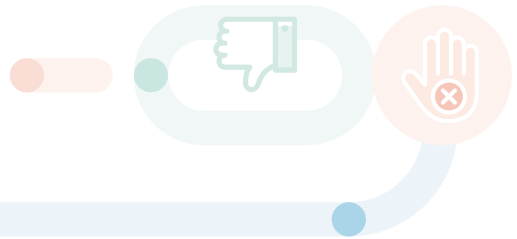


바른훈련 함께해요!

훈련이수자평가 준비 시 평가 문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직종의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수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작할 경우, F(Fail) 등급이 부여되고 훈련기관 인증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평가와 관련된 서류 조작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하여 성실히 평가를 준비해 주세요.

1인 벤처기업에 10명이 취업?





부정·부실훈련의 재구성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3년 인증을 받은 E훈련기관의 기관장 F씨는 내년에 우수 훈련기관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E훈련기관
기관장 F씨

올해 취업률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었네,
내년에 우수 훈련기관이 되기 위해 취업률을 높여야겠다

F씨는 해당 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수료생 △△△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E훈련기관
기관장 F씨

우리 훈련기관 수료생들이 취업한 경로 해서 취업확인서 좀 써서 보내주세요

수료생 △△△씨는 당황하였지만, 훈련기관장 F씨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취업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HRD-Net에 취업확인서를 차례대로 업로드한 F씨는 취업신고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취업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좋아했습니다.

그 시각 고용센터 W 주무관, 시스템을 확인하니 A 벤처 회사에 훈련생 여러 명이 연속해서 취업 된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용센터
W 주무관

이상하다, 작은 A 벤처 기관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료생이 취업했네?



부정·부실훈련 안돼요!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수료한 훈련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미취업한 훈련생을 허위 취업확인서로 취업률을 조작한 사례입니다.



바른훈련 함께해요!

기관인증평가 시 거짓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훈련성과 조작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인증 등급 취소 및 인증유예가 부여됩니다.

훈련기관은 실업 상태에 있는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취업 상담, 고용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세요.

www.ksqa.or.kr

2022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대표 사례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종합민원센터 Tel. 1644-5113